

전주시, 사회적 경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방이 나아갈 방향 제시

전주시는 최근 사회적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뤘던 코스타리카경제개발지방법정부협약체와 MOU를 체결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주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양극화 해법 '사회적경제육성'

전주는 지난 2014년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조직으로서 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본조례'를 제정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지역의 독립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을 다졌다.

이후, 시는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운영, 현장컨설팅 TF팀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사회적기업과 기업 등에 22억3000만원의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현재 451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며 선순환 독립경제를 구축 중이다.

또한 도시재생, 로컬푸드, 사회투자 기금 등 지역사회 이슈가 되는 사항을 세계와 논의하고자 행복의 경제학교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

며 특히, 올해 5회 차인 국제회의 기간에는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집중 홍보하고 가치 확산을 위해 행복의 경제학, 사회혁신한마당,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사회적 경제 구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전주 동물원에 조성한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플랫폼 '전주점빵'과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회적경제 생산품 이점장터를 운영하

고 있다. 특히, 우선구매, 홍보마케팅 등 올해 공공구매 81억 목표달성 중 상반기 43억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83개 사업장에서 576여명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의 공유 '전주형 공동체 사업'

전주형 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각자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화의 핵심사업으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중심형 능동적 지원 사업이 다양해졌다.

대표적으로 전주시가 추진중인 '운두레공동체'는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총 60개의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지속가능한 생태 구축 '도시재생'

민선6기부터 시작된 전주의 도시재생은 동네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던 기존의 재개발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전주만의 이색적인 문화로 부활했다.

조례 제정으로 스스로 자생력 키우기 위한 기본 다져
운두레공동체 · 구도심 등에 다채로운 사회 · 문화 도입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 방치된 공장였던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인적 드문 구도심였던 서노송에 숲, 삭막한 역 주변을 문화가 깃든 첫 마중길로 바꾼 도시재생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미촌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예술 인

권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선미촌에 문화상설 프로그램인 '말걸서사(書肆)'를 최초로 도입, 지역 청년예술가들과 시민이 운영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선미촌에 '청년커뮤니티' 청년갤러

리 전시장을 오픈, 도시를 재생하는 일에 민간 대기업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1970~80년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던 폐공장을 지역예술가와 산단 내 기업, 인근 주민 등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문화중심으로 탄생시킨 팔복예술공장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숨은 관광지 6선'에 선정됐다.

나아가, 시는 서하동·용머리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나섰고, 37년 된 낡은 전주 역사를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신축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창조적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역 첫 마중길은 물론 민선7기 김승수 시장의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풀, 나무 등 도시의 원래 피부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승자 독식과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경쟁 구조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거대 기업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켜내는 사회적경제 실현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가맥지기' 발대식 12일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는 자원봉사자 '가맥지기' 발대식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었다.

전주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2개소 설치키로

전주시는 이종천과 삼천 2곳에 자전거를 타고 하천 산책로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하천 자전거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종천의 경우 우안(우아동 전라도 음식이야기 앞)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하천 산책로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이 48m의 자전거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삼천 효자다리 하류 지점 우안에도 60m 길이의 자전거 진출입로를 설치해 물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장마철이 끝나면 공사에 착수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천 자전거 진출입로 및 야간 유도시설(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 편의시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중심에 '전통정원' 조성 추진

전주시, 공예품전시관 내 1396㎡ 부지 문화·휴게공간 갖춰

한옥마을의 중심에 전주의 문화를 담은 전통정원이 조성된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차장 1396㎡(422평) 규모 부지에 최소한의 나무와 바닥을 깔아 비어있는 전통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은 컴퓨터 기능을 담아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펼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이곳에 야외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한류마당과 전주의 전통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투영언덕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바다는 전통방식의 장대석 포장도 도입하고 한옥마을의 정취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통시설이 들어선다.

전통시설은 꽃나무 가지를 휘어서 병풍 모양으로 만든 '취병'과 햇빛을 피워 놓기 위해 세워두는 기둥 모양의 '정료대', 마을 어귀나 다리 등에 수호신으로 세운 사람 형상의 '백수', 돌을 우뚝하게 파서 절구 모양으로 만든 '물학'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전통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내내 준공을 목표로 이달에 공사를 발주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손의 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공간인 전주공예품전시관 내에 전통정원을 조성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난해 12월 수공예문화·산업과 손의 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편지를 통해 이웃과 이야기해요'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최

김해룡 한일장신대 교수 초청 '아버님전상서' 주제로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인권포럼은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 11일 다온복지센터 강의실에서 전북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 주관으로 시설장애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룡 한일장신대 인문학부 교수가 '아버님전상서'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높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정책 등을 강의, 비판,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강좌에서 김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고인이 된 아버님에 대한 편지를 아버지에게 바친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아 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을 살려 전달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강의에서 편지글을 통한 용서와 치유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사담과의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생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가 있을 뿐,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이번 강의를 통해 나 자



신을 드러낼 수 있어 자신이 더 많은 힐링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관계에서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앞으로 가족과 사담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써 볼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이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지역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바 이번 인문학 강좌를 통해 이들에게 단지 몸이 불편할 뿐 인간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선보일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수확의 기쁨 · 농업의 소중함 일깨워

전주농기센터, 울 초교 20곳 대상

도시농부 스킨십 체험활동 운영

어린이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도시농부 체험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올해 하기초등학교 등 20개 초등학교에 텃밭과 상자텃밭, 벼 체험장 등의 스킨십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텃밭체험 활동은 주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은 지난 4월 모종식재 체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교사와 함께 모내기 체험을 하고 상추와 가지, 토마토 등을 직접 심고 가꾸는 등 도시농부가 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참여 학교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작물생육을 돕기 위해 각 학교별로 2명의 텃밭관리사가

방문해 작물재배와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부터는 학생들과 함께 수확한 농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음식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전북도 전농농협 등과 힘을 모아 총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 노지텃밭 1290㎡와 상자텃밭 475개, 벼 체험장 160㎡ 등의 스킨십을 조성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쿨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텃밭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능력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의원에 금품 살포'

전주 A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덕진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해 이사 선출권을 가진 한 대의원(조합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성 치안 펼칠 것"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익산서 현장 소통 행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현장 소통 행보'를 보였다.

전북경찰청은 익산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조 청장은 상담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익산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위한 상담소의 활동 내용과 애로사항을 듣고 경찰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청장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총

력을 다하는 정성치안을 펼치겠다"며 "상담소에서도 피해자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훈 기자